'宋氏二水三山齋本' 계열 琴譜의 세 이본 『淵民本』、『朴淇煥本』、『國樂院本』의 비교

임재욱*

- 1. 서론
- 2. 송씨본계 거문고 악보의 새 이본, 연민본 『금보』
- 3. 송씨본계 거문고 악보 세 이본(『연민본』, 『박기환본』, 『국악원본』)의 비교
- 4. 결론

초록: 본고는 한국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송씨이수삼산재본 계열 금보의 새로운 이본인 『연민본』 금보를 소개하고, 이 계열에 속하는 세 이본인 『연민본』・『박기환본』・『국악원본』 중에서 어느 것이 비교적 오류가 적은 선본이고 또 가장 먼저 성립된 자료인지 알아보기 위해 세 이본에 수록된 거문고 연주법 관련 기록과〈만대엽〉및〈만대엽 조성보〉를 비교하는 작업을 시도한 글이다.

〈만대엽〉 계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악보 가운데 하나인〈만대엽 조성보〉는 송씨본 계열 금보에서만 볼 수 있는데, 세 이본에 기보된 곡조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면서도 이본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들이 발견되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선본일지 판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점은 원본이 전하지 않고 있는〈만대엽 조성보〉만의 비교로는 알기 힘들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원본이 존재하고 있는 다른 곡, 곧『양금신보』의〈만대엽〉과 이를 전사한 세 이본의〈만대엽〉을 비교해 보았다.

세 이본에서 『양금신보』와 다르게 기록한 곳을 찾아보면, 『연민본』에는 그것이 16곳, 『박기환 본』에는 30곳, 『국악원본』에는 27곳으로 집계되어 『연민본』의 수치가 다른 두 이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세 이본 가운데에서 『연민본』이 『양금신보』를 가장 잘 전사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이본의 성립 순서를 알아보기 위해 그것들 사이의 동이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세 이본 모두 『양금신보』를 직접 전사한 것이 아니라 세 이본과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는 다른 어떤 이본을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2) 세 이본은 서로서로 필사 대본과 전사본의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3) 『연민본』이 비교적 선본이면서 다른 본에 앞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박기환본』이나 『국악원본』이 선본이면서 다른 본에 앞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보다 높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송씨본 계열 금보의 세 이본인 『연민본』、『박기환본』、『국악원본』 가운데에서 『연민본』이 가장 선본이면서 또 가장 먼저 성립된 이본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연민본』이 오류가 가장 적을 뿐 아니라 성립 순서도 가장 빠른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송씨본 계열 금보의 연구에서 주요 대상은 『연민본』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琴譜, 淵民本 琴譜, 朴淇煥本 琴譜, 國立國樂院本 琴譜, 宋氏二水三山齋本 琴譜. 慢大葉

1. 서론

『宋氏二水三山齋本琴譜』(1651)는 민속학자 고 宋錫夏(1904~1948)가 1943년에 소개한 금보로 현재는 전하지 않고 있는 자료이다.¹⁾ 이것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자료로 현재 국립국악원 소장 『琴譜』,²⁾ 박기환 소장 『琴譜(單)』,³⁾ 『南薰遺譜』,⁴⁾ 경북대 소장 『琴譜』,⁵⁾ 『仁壽琴譜』⁶⁾ 등이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통칭하여 '이수계 금보' 혹은 '송씨본계 금보'라고 한다. 이 계열의 자료는 대체로 양금신보 전사 부분, 송씨본계 고유 악곡, 중국 금도론, 기타 부기사항의 네 가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⁷⁾

¹⁾ 장사훈의 국립국악원본『금보』에 대한 해설(『한국음악학자료총서』 2권, 국립국악원, 1980, 7-8면)과 이동복의 박기환본『금보』에 대한 해설(『한국음악학자료총서』 17권, 국립국악원, 1989, 13-14면) 및 이혜구의「현존 거문고보의 연대고」(『한국음악논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196-200면), 김세중의「'송씨이수삼산재본'계 거문고보 淺見錄」(『한국전통음악학』 제6호, 한국전통음학회, 2005, 149-150면) 참고,

^{2)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권, 국립국악원, 1980.

^{3) 『}한국음악학자료총서』17권, 국립국악원, 1989.

^{4)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8권, 국립국악원, 1989.

^{5)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8권, 국립국악원, 1989.

^{6) 『}한국음악학자료총서』19권, 국립국악원, 1989.

송씨본계 금보는 현존 민간 악보들 가운데 가장 위 세대군에 속한다는 점⁸⁾ 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한국 금보의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송씨본에는 이 계열 금보에만 실린 유일 곡들이 존재한다.〈慢大葉 古調〉와〈慢大葉 趙晟譜〉가 그것이다.〈만대엽 고조〉는 『玄琴東文類記』(1620)에도 있으나 합자보로만 되어 있는 『현금동문유기』의 것과 달리 송씨본의 것은 정간보에 기보되어 있다. 또〈만대엽 조성보〉는 송씨본에만 유일하게 전한다. 『현금동문유기』 「古今琴譜聞見錄」 부분에 『趙晟譜』의 조현법 등 일부 기재 내용이 전하고 있기는 하나여기에는 『조성보』 소재〈만대엽〉은 물론이고 어떤 악곡도 전재되어 있지 않다.9)

또 송씨본은 〈영산회상〉과 〈보허자〉를 수록하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악보 중 하나이다. 보허자는 『금합자보』(1572)에도 수록되어 있어서 이 악보에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다. 〈영산회상〉은 『현금신증가령』(1680), 『대악후보』(1759), 『속악원보』¹⁰⁾ 등 다른 악보에도 많이 전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송씨본 소재 악보보다 시기상 늦다. 송씨본이 영산회상을 수록한 현존 악보 가운데에서 가장 이른시기의 자료인 것이다.

아울러 송씨본은 또 중국 다양한 琴道論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금도론에 관한 것은 다른 금보에도 산재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송씨본만큼 많은 내용이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¹¹⁾

이 계열의 금보 가운데 『남훈유보』, 『인수금보』, 경북대 『금보』는 국악원 소장

⁷⁾ 김세중, 앞의 논문, 146-148면, 본고에서는 이 계열의 자료들을 간략히 "宋氏本系 琴譜" 혹은 "宋氏本"으로 칭한다.

⁸⁾ 이혜구, 앞의 논문, 196-200면,

⁹⁾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 전하지는 않고 있는 趙晟(1506~1544, 호는 養心堂.)의 금보(1540년 이전)는 『금합자보』(1572)보다 먼저 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금보 가운데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편찬된 악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되었던 곡 가운데에서는 송씨본 금보에 수록된〈만대엽 조성보〉한 곡만이 현재 전하고 있다.

¹⁰⁾ 정확한 편찬 시기는 미상이고, 대략 정조(1572-1800) 이후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¹¹⁾ 지금까지 알려진 거문고보에 수록된 금도론은 최선아, 2012 『조선후기 금론(琴論)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12면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림 1〉연민 이가원 문고 소장본 『금보』표지

본 금보 및 박기환 소장본 『금보』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그리고 원본인 송씨이수삼산재본 거문고보와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악원본』과 『박기환본』은 없어진 원본을 대신하여 17세기 중엽의 음악적 상황을 말해주는 단서로 삼을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³⁾

그런데 최근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 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있는 淵民 李家 源 문고 소장본 『琴譜』¹⁴⁾도 송씨본 계열의 금 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이 계 열의 또 다른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민본 『금보』에 대해서는 『양금신보』를 전사 한 자료로 언급된 적은 있으나,¹⁵⁾ 그것이 송씨

본 금보의 이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아직 언급된 적도 없고 또 그에 대해 자세히 고찰된 적도 없다.

송씨본 계열 금보 가운데 거의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세 이본인 연민본 『금보』, 박기환본 『금보』, 국립국악원본 『금보』는 같은 내용을 기록 또는 기보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본들 간에 미세한 차이점들이 많이 나타

^{12) 『}국악원본』과 『박기환본』은 송씨본계 고유 악곡인〈만대엽(조성보)〉,〈보허자〉,〈영산회상〉,〈만대엽(고조)〉를 차례대로 모두 싣고 있다. 이것들과 달리〈남훈유보〉,〈경대금보〉,〈인수금보〉는〈만대엽(고조)〉를 제외한 세 곡만 싣고 있고, 차례가 달라지기도 했으며(『남훈유보』), 네 곡 외에 다른 곡을 싣고 있기도 하다(『남훈유보』의〈평조삭엽〉,『인수금보』의〈금가금보〉).(김세중, 앞의 논문, 155면.)

¹³⁾ 위의 논문, 160면.

¹⁴⁾ 표제 : "琴譜 單". 규격 : 세로 26.6cm, 가로 16.8cm. 필사본. 편찬자와 편찬 시기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없음.

¹⁵⁾ 신현남, 2010「『梁琴新譜』의 사료적 가치」, 『국악교육』 29, 한국국악교육학회.

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세 이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오류가 적은 선본인지 또 어느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성립된 것인지 등에 대해 판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고에서는 세 이본을 면밀히 비교하여 이런 점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송씨본계 거문고 악보의 새 이본, 연민본 『금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있는 연민 이가원 문고 소장본 『금보』도 송씨본 금보의 한 이본이다. 수록곡과 기보 내용이 박기환본 『금보』나 국립국악원본 『금보』와 거의 같기 때문이다.¹⁶⁾ 곡의 목록을 포함하여 연민본 『금보』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執匙法, 調絃法, 按絃法, 打量法, 合字 玄琴 平調散形 羽調散形

/// 1月1月人/

慢大葉

北殿

中大葉 俗稱心方曲

中大葉 羽調

中大葉 羽調界面調

中大葉 平調界面調

調音 平調

感君恩 平調 四篇

¹⁶⁾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악원본 『금보』는 송석하가 소개한 『금보』(『송씨이수삼산재본금보』) 의 사본이다.(김세중, 앞의 논문, 150면) 연민본 『금보』의 수록곡과 기보 내용은 거의 국악원본 『금보』와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민본 금보는 송석하가 소개한 금보와도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 慢大葉 趙晟譜 步虚子 靈山會上 羽調界面調 慢大葉 古調¹⁷⁾ 多辭音¹⁸⁾

C.

彈琴須知

綴徽法

琴有七要

五切

十善

五能

琴有九不祥

五病

十疵

五軫¹⁹⁾

五不彈

五音正調

四時軫絃

五操

學琴須知

十三徽法

五音攷

七絃攷

絃論

琴雅部

玄琴鄉部

^{17) &}quot;慢大葉 古調" 아래에 "趙星譜皆出於此"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18) &}quot;多辭音" 아래에 "三章終"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19) &}quot;五軫" 아래에 "恐作疹"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D. 多辭音 界面²⁰⁾

위의 목록에서 A는 『양금신보』전사 부분이고, B는 송씨본계 금보에만 수록되어 있는 악곡들이며, C는 중국의 금도론이다. 이것들은 같은 계열의 이본인 『국악원본』이나 『박기환본』에서 볼 수 있는 곡목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연민본』에는 이것들 외에 세 편의 다슬음이 추가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만대엽 고조〉다음에추가된 것으로 "三章終"이라는 부기가 달려 있는 〈多辭音〉(B)과 맨 뒤에 실린 "多辭音"과 "界面"(D)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악곡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 세 곡은 『연민본』 금보에만 나타나는 악곡들이다.

그런데 세 이본은 대체로 같은 곡들을 수록하고 있지만, 수록된 개별 곡들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본들 간에 미세한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追	行	大綱	구분	연민본	박기환본	국악원본
	1	6	笛 구음	생략	라	라 ²²⁾
	2	3	笛 구음	리	리라	리라
1	3	2	거문고 합자	大四	大六	大六
1		3	거문고 합자	√ ↓		
		6	笛 음계	上一	上一	생략
		O	笛 구음	로	로	생략
	5	2	거문고 구음	스렝	스렝	스렁
2		5	거문고 구음	딩	디	딩
			笛 구음	리	리	러
		2	노랫말	ים	ĹĴ	ים

〈표 1〉 『연민본』、 『박기환본』、 『국악원본』의 〈만대엽 조성보〉 비교²¹⁾

²⁰⁾ 界面調 "多辭音"으로 보인다.

^{21) 〈}만대엽 조성보〉는 '연민본'과 '박기환본'이 1행 6대강 체재로 기보된 것과 달리, '국악원 본'은 1행 16정간 체제로 기보되어 있다.

		5	노랫말	에	애	에
	6	3	거문고 합자	9	9	생략
		4	笛 구음	다	라	리
			노랫말	ĻĻ	Ļ	Ļ
	7	2	거문고 구음	<u></u>	스 랭	스 랭
		5	거문고 구음	<u></u>	스 랭	스 랭

이것은 세 이본의〈만대엽 조성보〉를 제2지까지만 비교해본 것이다. 똑같은 곡을 전사한 것으로 보이는 세 이본에 위와 같은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세 이본에는 모두 명백한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고 특정 음이 누락된 곳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연민본』에서 제1행, 제6대강의 적(笛) 구음 "라"를 생략한 것이라든가제6행, 제4대강의 적(笛) 구음을 "다"로 기록한 것이라든가제7행, 제2대강 및 제5대강에서 거문고 구음을 "스렝"으로 기록한 것은 모두 오류이다. 『국악원본』제1행,제6대강에서 적(笛)의 음계와 구음을 한 줄씩 왼쪽에 기록한 것이라든가제3행,제6대강에서 적(笛)의 음계와 구음을 모두 생략한 것 등도 전사자의 실수에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박기환본』에서 제5행,제2대강과 제5대강의 노랫말을 "민"와 "애"로 기록한 것과 달리 『연민본』과 『국악원본』에서는 그것들을 "민"와 "에"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오류, 착오, 실수와 함께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이 존재한다. 제3행, 제2대강의 거문고 합자는 『연민본』은 "大四"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두 이본은 "大六"으로 되어 있다. 또 제5행, 제2대강의 거문고 구음은 『연민본』과 『박기환본』에서 "스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국악원본』에서는 "스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제6행, 제4대강의 적(笛) 구음이 『박기환본』 에는 "라"로 나타나나 『국악원본』에는 "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느 본의 기보가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물론 위에서 살핀 것 처럼 세 이본 모두 전사 과정상의 오류나 실수를 공통적으로 범하고 있기 때문에

²²⁾ 적(笛)의 구음 "라"를 한 줄 왼쪽인 노랫말을 기록하는 행에 잘못 기재함. 그와 함께 적 (笛)의 음계 "宮"도 한 줄 왼쪽인 구음을 기록하는 행에 잘못 기록함.



〈그림 2〉 연민본『금보』의〈만대엽 조성보〉

어느 하나가 완벽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는 어려울 것이다. 그 렇기는 하지만 세 이 본 가운데 비교적 오 류가 적은 것은 어느 것일지는 판정을 내 릴 필요가 있다. 만약 세 이본 가운데 善本 이 존재한다면 그것 이 연구의 기준이자 우선적 고찰의 대상 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대엽 조성보〉의 경우는 세 이본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악보에 같은 곡이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 이본의 기보 중 어느 것이 비교적 정확한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송씨본 계열의 거문고 악보는 모두 『양금신보』를 전사하여 앞부분에 수록하고 있으므로, 『양금신보』에 수록된 곡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세 이본에 전사된 것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선본일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3. 송씨본계 거문고 악보 세 이본(『연민본』, 『박기환본』, 『국악원본』)의 비교

세 이본 가운데 비교적 정확인 이본인 선본이 어떤 것일지 알아보기 위해 『양

금신보』와 송씨계 금보의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거문고 연주법과 관련된 설명 부분 및 첫 번째 곡〈만대엽〉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거문고 연주법(執匙, 調絃, 按絃, 打量, 合字法) 설명 부분

『박기환본』에서는 연주법의 제목에 해당하는 "右執匙法", "右調絃法", "右按絃法"이 『양금신보』와 달리 각각에 대한 설명의 뒤가 아니라 앞에 위치한다. 그와함께 『박기환본』에서는 『양금신보』의 "合字"를 "右合字法"이라고 고쳐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앞의 "右執匙法", "右調絃法", "右按絃法"과 어구 형식상의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 역시 원본과는 다른 것이다. 『연민본』과 『국립국악원본』이 『양금신보』를 충실히 전사했다 할 수 있고, 『박기환본』은 알아보기 쉽게 하거나 형식적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원전 구절의 위치와 어구 형식을 바꾸었다. 23)

서두 부분에서 『양금신보』의 "厶"(鉤引其絃 則其聲先平後高 聲旣出則還例按)이 『연민본』에는 "Д"로 『박기환본』에는 "○"로、『국악원본』에는 "△"로 표기되어 있다. 이 표시는 『연민본』의 것이 원본과 가장 비슷하고 『국악원본』은 비슷하나 다른 모양이 되었고 『박기환본』에서는 거리가 멀어졌다. 실제 악보에서 이것들을 기보한 사례를 보면、『연민본』은 서두 부분의 "Д"과 같은 형태를 사용하고 있으나、『박기환본』과 『국악원본』은 모두 "○"를 사용하고 있다. 『국악원본』은 서두 부분에서 『양금신보』와 형태상 비슷한 도형 "△"으로 표기하기는 했으나 실제 악곡의 기보에서는 이것을 버리고 "○"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박기환본』의 오류가 답습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²³⁾ 뒤의〈만대엽〉전사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립 순서를 고려하여 추정해 보건대, 이 부분은 『연민본』이 먼저 원본을 충실히 전사하고, 『연민본』을 보고 『박기환본』이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추구하여 제목의 위치와 어구 형식을 바꾸었는데, 『국악원본』에서는 『박기환본』의 방식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서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 것으로 보인다. 『박기환본』에서처럼 제목이 그것에 대한 설명보다 먼저 나오면 "右執匙法" 등에서의 "右"자가 가리키는 의미가 설명 부분이 제목의 왼쪽에 위치하는 자료의 실상과 부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2) 〈만대엽〉

제1지

제1행 제2마디²⁴⁾ : 『국악원본』은 원본의 "商"을²⁵⁾ 누락했다. 『박기환본』은 이체 자 "商"을 "商"으로 교체 기록했고, 『연민본』은 "商"을 그대로 "商"으로 기록했다.

^{24) &#}x27;마디'는 통상 '악보에서 세로줄로 구분되어 있는 악곡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한 행을 2등분하여 기보한 〈만대엽〉 악보에서 '반행'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 '제1마디'는 '제1반행' 또는 '전반행', '제2마디'는 '제2반행' 또는 '후반행'을 가리킨다. '반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바꾸면 "제1행 제2마디"는 "제1행제2반행" 또는 "제1행 후반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5) &}quot;商"의 이체자.

『연민본』은 "스렝"을 "스렁"으로 기록했다. 26)

제3행 제1마디 : 『국악원본』은 원본의 "角", "商", "宮"을 모두 누락했다. 『박기 환본』과 『연민본』은 원본의 "角"을 누락하고 "商"(商)과 "宮"만 기록했다.²⁷⁾

제3행 제2마디 : 세 본 모두 원본의 "商"을 "徵"로 바꾸어 기보했다. 28)

제2지

제1행 제2마디 : 『연민본』은 원본의 "스렝"을 "스랭"으로 기록했고, 나머지 두 이본은 원본대로 기록했다.

제2행 제2마디: 『국악원본』과 『박기환본』이 모두 셋째 음 "宮"을 두 차례 썼다가 지운 흔적이 보인다. 『연민본』은 이 음을 원본에 나오는 대로 "宮"으로 기록했다. ²⁹⁾ 『박기환본』은 원본의 "딩 다 등 덩"을 "디 당 등 덩"으로 기록했고, 나머지 두 본은 모두 원본대로 "딩 다 등 덩"으로 기록했다.

^{26) 『}연민본』은 구음을 잘못 기록한 예가 있기는 하나 이체자를 그대로 따라 기록하는 등 원 본을 충실히 전사하고자 했다.

²⁷⁾ 여기에서는 『박기환본』과 『연민본』의 친연성이 보인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²⁸⁾ 이를 통해 세 본 모두 원본의 직접 전사한 것이 아니라 원본을 베낀 어떤 이본을 再轉寫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 『}국악원본』과 『박기환본』은 제2행 제2마디의 "宮"을 두 차례 지운 흔적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두 본 중 어느 하나는 필사 대본, 나머지는 그 사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또한 『연민본』이 이 둘을 베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연민본』이 둘을 베꼈다면 같은 자리에 "宮"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민본』을 『박기환본』과 『국악원본』 중 어느 하나가 베끼고 그것을 다시 나머지한 본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제1지와 제2지의 "제3행 제1마디"에서 보이는 『연민본』과 『박기환본』의 친연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연민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대본으로 하여 『박기환본』이 성립되었고, 『박기환본』이 다시 『국악원본』으로 전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송씨본이 『국악원본』의 대본이었다면, 송씨본은 『박기환본』과 『국악원본』 사이에 존재한 사본이었을 것이다. 곧 『연민본』 → 『박기환본』 → 송씨본 → 『국악원본』의 순서로 전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민본』 이 지금까지 알려진 송씨본 계열 거문고보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제3행 제1마디 : 원본의 구음 "스렝 덩 다 둥 덩 딩 당"을 『연민본』과 『박기환 본』은 모두 전사했으나 『국악원본』은 모두 누락했다.³⁰⁾

제3지

제1행 제1마디 : 『국악원본』에는 원본의 右點擧絃을 가리키는 표시인 "大六" 우측 상단의 "'9"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

제1행 제2마디 : 원본의 구음 "스러잉딩"이『박기환본』에는 "스렝잉딩"으로 표기되어 있다.『연민본』과『국악원본』은 원본과 같다. "先久後ヵ"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표시인 원본의 "厶"가『연민본』에는 그와 유사한 표시인 "Д"로 되어 있는데,『박기환본』과『국악원본』는 이것이 "ㅇ"으로 바뀌어 있다. 또 원본의 "仍力安"이라는 설명이『박기환본』에서는 "力" 자가 빠진 채 "仍安"으로만 되어 있다.『연민본』과『국악원본』에는 모두 원본과 같이 "仍力安"으로 되어 있다.

제2행 제1마디 : 원본의 "스렝"을 『박기환본』은 "스랭"으로 기록했다.

제2행 제2마디 : 원본의 "스랭"을 『국악원본』은 "스랭"으로 기록했다.

제3행 제1마디 : 원본의 "스렝"을 『국악원본』은 "스랭"으로 기록했다.

제3행 제2마디 : 원본의 "딩"을 세 본 모두 "덩"으로 기록했다.

제4행 제1마디 : 원본의 "다루덩"을 『박기환본』은 "다퉁덩"으로 기록했다.

제4행 제2마디 : 원본의 "스렝"을 『국악원본』은 "스랭"으로 기록했다.

제5행 제1마디 : 원본의 "스렝"을 『국악원본』은 "스랭"으로 기록했다.

제5행 제2마디 : 원본의 "스렝"을 『국악원본』은 "스랭"으로 기록했다. 원본의 "先久後例"를 『박기환본』은 "先久後ヵ"으로 기록했다.

『연민본』은 4번째 장 전면을 후면에 다시 기보하고 후면 상단에 "此疊出"이라는 주석을 달아 놓았다. 『연민본』에서 중첩 기록된 부분은 〈만대엽〉제3지 제2~5

³⁰⁾ 이 부분에서는 『국악원본』의 결함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³¹⁾ 이 부분에서는 『박기환본』의 결함이 가장 크다.

행에 해당한다.³²⁾ 『연민본』의 중첩 부분이 『박기환본』과 『국악원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제4지

제1행 제2마디: 『박기환본』은 원본에 있는 "方六" 우측 상단의 "'' 표시를 누락했고, 『국악원본』은 원본의 "徵" 누락했다. 『연민본』은 이 부분을 정확히 전사했다.

제2행 제1마디 : 원본의 음계 "角角徵商角"에서 두 번째 "角"을 『박기환본』은 "商"으로 잘못 옮겼다.

제5지

제1행 제1마디 : 『박기환본』은 마지막에 원본에 없는 작은 "○"를 추가했다.

제1행 제2마디 : 『박기환본』은 원본의 "디"를 "더"로 기재했다.

제2행 제1마디 : 『연민본』은 원본에 있는 淸 좌측의 "√"표시 누락했다. 『박기 환본』과 『국악원본』은 이것을 모두 기록했다.³³⁾

제2행 제2마디: 『박기환본』은 "大三" 좌측에 있는 長指 표시를 "【"를 누락했다. 제3행 제2마디: 『박기환본』은 "〈랭"을 "〈랑"으로 기록했다. 『국악원본』은 "大六" 우측 위쪽에 표시된 "'9"을 누락했다.

제4행 제1마디 : 『연민본』은 "딩딩"에서 두 번째 "딩"을 "디"로 기보했다. 『박기환본』도 이것을 "디"로 기보했다. 『국악원본』은 "딩딩"을 "디디"로, 이어지는 "다루덩"의 "다"도 "디"로 기보했다.

제4행 제2마디: 『연민본』, 『박기환본』, 『국악원본』 모두 원본의 복잡한 내용 가운데 첫머리 일부만 옮겨 놓았다. 곧 세 본 모두 "商宮商宮羽羽徵"에서는 "商宮商"만을. "大六大五를 大六大五는同大三十同文"에서는 "大六大五를 大六大五"만을.

³²⁾ 이는 『연민본』의 가장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단에 주석이 있어서 누구라도 그부분이 중첩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³³⁾ 이 점은 『박기환본』과 『국악원본』이 『연민본』을 직접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디당딩다둥스렝덩"에서는 "디당딩"만을 옮겨 놓았다.

제5행 제2마디 : 원본의 내용을 세 이본 모두 생략했다. 34)

餘音

제1행 제2마디: "方六"과 "上同" 사이의 좌측에 있는 "厶"를 『연민본』은 "方六" 아래에 "ㅿ"로 표시했다. 『박기환본』과 『국악원본』도 이것을 『연민본』처럼 "方六" 아래에 표기했는데, "厶"가 아니라 "ㅇ"로 표시했다.³⁵⁾

제2행 제1마디: 『연민본』에는 "大五" 다음에 원본에 없는 "ś"가 기보되어 있다. 『박기환본』에도 『연민본』과 같은 자리에 "š"가 나온다. 『국악원본』 역시 같은 자리에 "š"를 표기했다.³⁶⁾ 『박기환본』은 원본에 있는 "宮"을 누락했다.

제3행 제2마디: 『연민본』은 "方五"의 우측 상단에 원본에 없는 "''를 넣었다. 『박기환본』과 『국악원본』도 『연민본』과 같은 자리에 "''"를 넣었다. ³⁷⁾ 원본의 "디 등덩"의 "디"를 『박기환본』은 "다"로 기록했다.

제4행 제2마디 : 『연민본』은 원본의 "스랭디덩"의 "디"를 "둥"으로 바꾸어서 "스랭둥덩"으로, "디당딩딩당"을 "딩당딩당"으로 간략하게 기록했다. 『박기환본』과 『국악원본』도 『연민본』과 같이 기록했다.³⁸⁾

이상의 조사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³⁴⁾ 세 이본이 서로 상통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³⁵⁾ 표기 형태는 모두 원본과 다르나 위치상으로 보면 세 이본은 서로 상통한다.

³⁶⁾ 세 이본 모두 원본에 없는 요성을 넣었다. 이 역시 세 본이 서로 상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³⁷⁾ 세 이본이 서로 상통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³⁸⁾ 세 이본이 서로 상통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2〉『양금신보』, 『연민본』, 『박기환본』, 『국악원본』의 〈만대엽〉비교

	(# <i>L/</i> 6							
순번	当	行	刻	양금신보	연민본	박기환본		비고
1		1	2	商	同	同(商)	누락	
2	1	3	1	角商宮	商宮	商宮	누락	
3			2	商	徵	徵	徵	
4		1	2	스렝	스랭	同	同	
5		2	2	宮	同	지움	지움	
6	2	2	2	딩다둥덩	同	디당둥덩	同	
7		3	1	스렝덩다둥덩딩당	同	同	누락	
8			1	大六 9	同	同	"9" 누락	
9		,	2	스러잉딩	同	스렝잉딩	同	
10		1	2	ム	回(7)	0	0	
11			2	仍力安	同	仍安	同	
12		0	1	스렝	同	스랭	同	
13		2	2	스 랭	同	同	스랭	
14	3	3	1	스렝	同	同	스랭	
15			2	딩	덩	덩	덩	
16		4	1	다루덩	同	다둥덩	同	
17			2	스렝	同	同	스랭	
18		5	1	스렝	同	同	스랭	
19			2	스렝	同	同	스랭	
20			2	先久後例	同	先久後カ	同	
21		1	2	徵	同	同	누락	
22	4	1	2	•	同	누락	同	
23		2	1	角	同	商	同	
24	5	1	1		同	"○" 추가	同	
25			2	디	同	더	司	
26			1	\checkmark	누락	同	司	
27		2	2	L	同	누락	司	
28		3	2	스 랭	同	사랑	同	
29			2	,	同	同	누락	
30		4	1	딩딩	딩디	딩디	디디	
31			1	다루덩	同	同	디루덩	
32		4	2	商宮商 宮羽羽徵	商宮商	商宮商	商宮商	
33			2	大六大五、大六大五	大六大五豸大	大六大五豸大	大六大五豸大	

				上同大三上同文	六大五	六大五	六大五	
34			2	디당딩다둥스렝덩	디당딩	디당딩	디당딩	
35			2	角商角	생략	생략	생략	
36		5	2	方四方二方四方二	생략	생략	생략	
37			2	스렝도딩	생략	생략	생략	
38		1	2	ム("方六"과 "上同" 사이의 좌측)	ム ("方六" 아래)	o ("方六" 아래)	ㅇ ("方六" 아래)	
39		2	1	大五	大五 ¾	大五 ¾	大五 ¾	
40	여음	2	1	宮	同	누락	同	
41	어늄	3	2	方五	方五 •	方五 9	方五 ·	
42		J	2	디둥덩	同	다둥덩	同	
43		4	2	<u></u>	스랭둥덩딩당딩 당	스랭둥덩딩당 딩당	스랭둥덩딩당 딩당	
	同(異) 합계 (총 사례 : 43)				27(16)	13(30)	16(27)	

("同"은 『양금신보』와 똑같이 기보된 경우를 말함.)

위의 조사는 세 이본의 『양금신보』 전사 양상을 비교해 보기 위해, 세 이본 가 운데에서 『양금신보』의 기보 내용과 다른 곳이 하나에라도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 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 이본에 나타나는 실제의 "同"(『양금신보』 와 동일하게 기보된 경우) 숫자는 조사 결과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다.

세 이본에서 『양금신보』와 다르게 기록한 곳을 계산해 보면, 『연민본』에는 그것이 16곳, 『박기환본』에는 30곳, 『국악원본』에는 27곳으로 집계된다. 『박기환본』과『국악원본』은 3곳의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는 크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이다. 그러나 『연민본』의 수치는 다른 두 이본에 비해 훨씬 적다. 조사된 결과 내에서 "同"의 수자를 비교해 보면, 『연민본』은 27곳으로 박기환의 13곳보다 2배 이상(2.08배), 『국악원본』의 16곳보다는 2배 가까이(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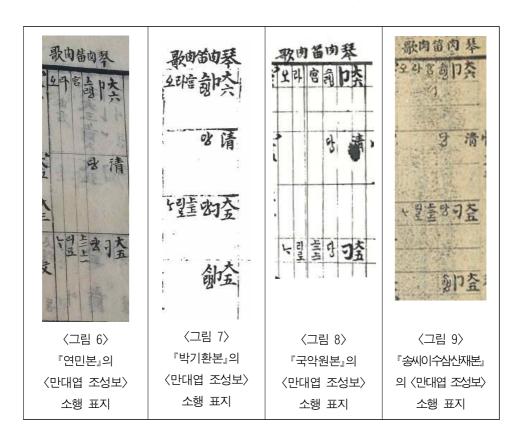
이런 점과 함께 〈만대엽 조성보〉에서 정간보의 小行을 가리키는 표지인 "琴", "肉", "笛", "肉", "歌"가 기록된 위치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연민본』을 제외한

송씨본 계열의 금보 중에서 그 위치가 비교적 바르게 기록된 것은 『국악원본』밖에는 없다. 아래의 〈그림 7〉과 〈그림 9〉³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박기환본』과 송석하가 소개한 송씨이수삼산재본 『금보』의 〈만대엽 조성보〉에서는 소행 표지가 그것들이 가리키는 행보다 모두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악원본』은 원본인 송씨이수삼산재본『금보』를 이혜구가 1930년경에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⁴⁰⁾ 〈그림 9〉와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혜구는 전사하는 과정에서 소행 표지의 위치를 조금씩 바로잡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민본』의 소행 표지는 이혜구가 『국악원본』에서 바로잡아 기록한 소행 표지와 가장 비슷한 위치에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연민본』은 『박기환본』이나 『국악원본』의 원 대본인 『송씨이수삼산재본』과 같은 여타의 금보보다 전사가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³⁹⁾ 송석하, 1943「現存朝鮮樂譜」,『田邊先生還曆記念東亞音樂論叢』,東京: 山一書房, 417면: 송석하, 1960「현존한국악보」,『한국민속고』, 일신사, 474면에는 사라진 송씨이수삼산재본 『금보』에 수록된〈만대엽 조성보〉의 첫째 면 사진이 소개되어 있다.

⁴⁰⁾ 이혜구, 앞의 논문, 198면; 김세중, 앞의 논문, 149-150면, 이혜구는 "이 금보는 필자가 1930년경 고 송석하 선배의 청으로 이수금보를 필사하다가 실수로 악보에 먹을 떨어뜨린 흔적이 (조성 만대엽보 제1행) 역연하여 그 금보가 이수삼산재본금보임을 알 수 있다." (이혜구, 1989 「현존 거문고보 연대고」, 『국악원논문집』 창간호, 국립국악원, 12면.)고 하여 국악원본 『금보』가 바로 사라진 송씨이수삼산재본 『금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김 세중은 송석하가 논문 송석하, 1943, 앞의 논문, 417면에서 소개한 〈만대엽 조성보〉의 첫째 면 사진과 이혜구가 먹물을 떨어뜨렸다는 국악원본 『금보』 소재〈만대엽 조성보〉의 같은 부분을 비교하여, 두 자료가 서로 다른 이본이라는 점과 이혜구가 필사하면서 먹물을 떨어뜨린 자료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는 점 등을 밝힌 바 있다. 이 점은 본고의 그림 8과 그림 9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림 8은 이혜구의 먹물 자국이 남이 있는 국악원본 금보〈만대엽 조성보〉 첫 부분을, 그림 9는 송석하가 논문에서 소개한 송씨본의 동일 부분 사진을 다시 옮겨 온 것이다. 이혜구의 사본이 원본과 다르다는 것은 거문고 구음을 기록한 행을 가리키기 위해 표기한 "琴" 자의 위치가 서로 같지 않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세 이본 가운데에서 『연민본』이 『양금신보』를 가장 잘 전사한 이본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연민본』도 누락된 곳이나 착오나 오류로 잘못 기록된 곳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완전한 사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는 하지만 『연민본』은 『박기환본』과 『국악원본』보다는 그 이전 시기 악곡들의 기보 내용을 비교적 잘 전수하고 있기 때문에, 송씨본 금보 계열의 세 악보 가운데 최선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송씨본 금보에 대한 연구는, 『박기환본』이나 『국악원본』도 필요할 경우 참고하되, 『연민본』에 기보된 내용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세 이본의 선후 관계

그렇다면 세 이본의 성립 순서는 어떻게 될까? 이 점에 대해 판단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연민본』에는 바르게 기보되고 『박기환본』과 『국악원본』에는 동일하게 잘못 기보된 사례인 5, 10⁴¹⁾은 다른 것들보다 『연민본』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연민본』에서는 잘못 기보된 것이 『박기환본』과 『국악원본』에는 바르게 기보된 사례인 26과 같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민본』이 가장 먼저 성립했을 것이라는 위의 추론(주석 29번)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역시 조사한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한 통계적 접근을 통해 해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가. 연 = 박 = 국 : 11곳

이것은 『양금신보』와 다르게 기보되어 있으면서 세 이본이 같은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3, 15, 32, 33, 34, 35, 36, 37, 39, 41, 43.

이 사례들이 43개의 사례 중에서 11개나 있다는 것은 세 이본 모두 『양금신보』 를 직접 전사한 것이 아니라 세 이본과는 다른 어떤 이본을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는 세 이본의 선후 관계를 추 론할 수 없다.

나. 연 ≠ 박 ≠ 국 : 0곳

이것은 『연민본』, 『박기환본』, 『국악원본』이 모두 다르게 기보된 경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다. 세 이본이 모두 다르게 기보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면 세 이본 사이에 영향 관계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세 이본이 서로서로 필사 대본과 전사본의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⁴¹⁾ 이 번호는 도표상의 순서를 가리킨다. 아래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다. 연 = 박 ≠ 국 : 13곳

이것은 『연민본』과 『박기환본』은 같지만 『국악원본』은 다르게 기보된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1, 2, 7, 8, 13, 14, 17, 18, 19, 21, 29, 30, 31.

- 이 사례들은 다시 다음의 두 경우로 나뉜다.
 - a. 『연민본』, 『박기환본』이 『양금신보』와 같은 곳 : 11곳. (1, 7, 8, 13, 14, 17, 18, 19, 21, 29, 31)
 - b. 『연민본』. 『박기환본』이 『양금신보』와 다른 곳 : 2곳. (2, 30)

여기에 속하는 13곳의 사례들은 『연민본』과 『박기환본』이 대본과 전사본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국악원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이것들 중에서 a에 해당하는 사례가 11곳을 차지하여 압도적이라는 것은 『연민본』 과 『박기환본』이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이본을 비교적 정확히 전사했으나 그것이 『국악원본』으로 다시 전사되면서 오류가 많이 생겼다는 점을 시사한다.

b에 해당하는 반대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2개를 검토해보면 그것들 중 『국악원본』과 『양금신보』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국악원본』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것을 이어받아 나머지 두 이본, 곧 『연민본』과 『박기환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례는 『국악원본』이 세 이본 중 가장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알려준다.

라. 연 = 국 ≠ 박 : 14곳

이것은 『연민본』과 『국악원본』은 같지만 『박기환본』은 다르게 기보된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6, 9, 11, 12, 16, 20, 22, 23, 24, 25, 27, 28, 40, 42,

- 이 사례들은 다시 다음의 두 경우로 나뉜다.
 - a. 『연민본』, 『국악원본』이 『양금신보』와 같은 곳 : 14곳.
 - b. 『연민본』、『국악원본』이 『양금신보』와 다른 곳 : 0곳.

여기에 속하는 14곳의 사례들은 『연민본』과 『국악원본』이 대본과 전사본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박기환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이것들 중에서 a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부인 14곳을 차지한다는 것은 『연민본』과 『국악원본』이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이본을 비교적 정확히 전사했으나 그것이 『박기환본』으로 다시 전사되면서 오류가 많이 생겼다는 점을 시사한다.

b에 해당하는 반대 사례는 하나도 없다. 즉 『양금신보』와 『박기환본』이 같고 그 것이 『연민본』 및 『국악원본』과는 다른 사례는 전무하다. 이것은 『박기환본』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것을 이어받아 나머지 두 이본, 곧 『연민본』과 『국악원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례는 『박기환본』이 세 이본 중 가장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알려준다.

'다'와 '라'의 사례를 통해서 『국악원본』과 『박기환본』이 『연민본』보다 먼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연민본』이 나머지 두 이본보다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 연 ≠ 박 = 국 : 4곳

이것은 『박기환본』과 『국악원본』은 같지만 『연민본』은 다르게 기보된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4, 5, 10, 38.

- 이 사례들은 다시 다음의 두 경우로 나뉜다.
 - a. 박기환, 『국악원본』이 『양금신보』와 같은 곳 : 1곳. (4)
 - b. 박기환, 『국악원본』이 『양금신보』와 다른 곳 : 3곳. (5, 10, 38)

여기에 속하는 4곳의 사례들은 『박기환본』과 『국악원본』이 대본과 전사본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연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이것들 중에서 a에 해당하는 사례가 1곳밖에 안되고 b에 해당하는 사례가 3개나 되는데,이것은 『박기환본』과 『국악원본』이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이본을 비교적 정확히 전사했으나 그것이 『연민본』으로 다시 전사되면서 오류가 생기게 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박기환본』과 『국악원본』이 『연민본』

보다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b에 해당하는 사례 중 5와 10은 『양금신보』와 『연민본』이 같은 경우이다. 그리고 38은 세 이본이 모두 『양금신보』와 다르게 기보된 경우이다. 그래서 a와 b를 통틀어 『양금신보』와 『연민본』이 같은 사례(5, 10)은 2곳이고, 『양금신보』와 『박기환본』 및 『국악원본』이 같은 사례(4)는 1곳에 지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적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2배 더 많다는 점은 『연민본』이 비교적 선본이면서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박기환본』이나 『국악원본』이 선본이면서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와 '라'의 사례에서 『연민본』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는데, 이 점은 '마'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증된 셈이다.

4. 결론

본고는 한국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송씨이수삼산재본' 계열 금보의 이본인 『연민본』, 『박기환본』, 『국악원본』 중에서 어느 것이 비교적 오류가 적은 선본이고 또 가장 먼저 성립된 자료인지 알아보기 위해 세 이본에 수록된 거문고 연주법 관련 기록과〈만대엽〉및〈만대엽 조성보〉를 비교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만대엽〉계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악보 가운데 하나인〈만대엽 조성보〉는 송씨본 계열 금보에서만 볼 수 있는데, 세 이본에 기보된 곡조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면서도 이본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들이 발견되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선본일지 판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점은 원본이 전하지 않고 있는 〈만대엽 조성보〉만의 비교로는 알기 힘들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원본이 존재하고 있는 다른 곡, 곧 『양금신보』의〈만대엽〉과 이를 전사한 세 이본의〈만대엽〉을 비교해보았다.

세 이본에서 『양금신보』와 다르게 기록한 곳을 찾아보면, 『연민본』에는 그것이

16곳, 『박기환본』에는 30곳, 『국악원본』에는 27곳으로 집계되어 『연민본』의 수치가 다른 두 이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세 이본 가운데에서 『연민본』이 『양금신보』를 가장 잘 전사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이본의 성립 순서를 알아보기 위해 그것들 사이의 동이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세 이본 모두 『양금신보』를 직접전사한 것이 아니라 세 이본과는 다른 어떤 이본을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나. 세 이본은 서로서로 필사 대본과 전사본의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 『국악원본』이 세 이본 중 가장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 라. 『박기환본』이 세이본 중 가장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 라. 『박기환본』이 세이본 중 가장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없다. 마. 『연민본』이 비교적 선본이면서 다른 본에 앞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박기환본』이나 『국악원본』이 선본이면서 다른 본에 앞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보다 높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송씨본 계열 금보의 세 이본인 『연민본』, 『박기환본』, 『국악원본』 가운데에서 『연민본』이 가장 선본이면서 또 가장 먼저 성립된 이본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연민본』은 세 이본 가운데에서 오류가 가장 적을 뿐아니라 성립 순서도 가장 빠른 最善이자 最先의 금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본고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남훈유보』, 『인수금보』, 경북대 『금보』보다도 선본이면서 먼저 이루어진 이본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연민본』의 편찬자나 정확한 편찬 시기 등 최소한의 물리적 정보도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단정을 내리기는 아직 조심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다만 앞으로 송씨본 계열 금보의 세 이본 가운데에서 연구의 주요 대상이 『연민본』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고의 논의를 통해서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2016, 11, 1), 심사일(2016, 11, 24), 게재확정일(2016, 12, 8)

참고문헌

경북대 소장 『琴譜』(『한국음악학자료총서』 18권, 국립국악원, 1989.) 국립국악원 소장 『琴譜』(『한국음악학자료총서』 2권, 국립국악원, 1980.) 박기환 소장 『琴譜(單)』(『한국음악학자료총서』 17권, 국립국악원, 1989.) 淵民 李家源 문고 소장본 『금보(單)』(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南薰遺譜』(『한국음악학자료총서』 18권, 국립국악원, 1989.) 『仁壽琴譜』(『한국음악학자료총서』 19권, 국립국악원, 1989.)

- 김세중, 2005 「'송씨이수삼산재본'계 거문고보 淺見錄」, 『한국전통음악학』 제6호, 한 국전통음학회, 145-162면
- 송석하, 1943「現存朝鮮樂譜」,『田邊先生還曆記念東亞音樂論叢』, 東京 : 山一書房, 387~432면.
- , 1960「현존한국악보」,『한국민속고』, 일신사.
- 신현남, 2010 「『深琴新譜』의 사료적 가치」, 『국악교육』 29, 한국국악교육학회, 101-12면.
- 이혜구, 1989「현존 거문고보 연대고」、『국악원논문집』창간호, 국립국악원.
- , 1995「현존 거문고보의 연대고」,『한국음악논고』,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선아, 2012『조선후기 금론(琴論)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ree Geomungo Scores(琴譜)
Yeonminbon(淵民本), Bakgihwanbon(朴淇煥本) and
Gukakwonbon(國樂院本) which belong to Songciyisusamsanjaebon
(宋氏二水三山齋本) Geomungo Score

Yim, Jaewook

This study compares three geomungo scores Yeonminbon(淵民本), Bakgihwanbon(朴淇煥本) and Gukakwonbon(國樂院本) which belong to Songciyisusamsanjaebon(宋氏二水三山齋本) geomungo score to discover which one is the best score that have relatively little errors and which one is compiled first of all.

we can deduce from this comparison that Yeonminbon(淵民本) is the best score and it was compiled earlier than Bakgihwanbon(朴淇煥本) and Gukakwonbon(國樂院本). So we have to regard Yeonminbon(淵民本) as a basic data when studying geomungo scores that belong to Songciyisusamsanjaebon(宋氏二水三山齋本).

Key words: Geomungo Scores(琴譜), Yeonminbon(淵民本), Bakgihwanbon(朴淇煥本), Gukakwonbon(國樂院本), Songciyisusamsanjaebon(宋氏二水三山齋本), Mandaeyeop(慢大葉)